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2. 2.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 교회를 세우는 교회

## Church Uplifting Church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2025년 2월의 문턱을 들어섭니다. 지난 달에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 튀르키예 땅을 밟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걸었던 사도 바울의 숨결을 느끼며, 형제교회의 아웃리치팀도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통해, 튀르키예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봄이 오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2025 형제 공동체는 “Mission On Plus,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외칩니다. 이제 형제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일어나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준비(Equip)하는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작정 해주신 형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아웃리치를 통해서 국내외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우리 형제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난 교회들로부터 받은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선교의 리더는 성령님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선교의 리더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형제 한 분, 한 분이 선교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나와 가족들과 순식구들이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름에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의 종, 권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2월 10일 본문, P166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여세요.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11:36-44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적miracle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sign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는 ~이다'라고 언급한 표현들을 일곱 번 열거했습니다. 요한의 저작물(요한복음, 요한 일, 이, 삼서, 요한 계시록)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가지 표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일곱 번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언급된 구원자(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표적들 중 마지막 표적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극적인 표적을 살펴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에 마르다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0절)

**1-2 <적용과 나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된 일, 또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1 < 관찰과 묵상** 사람들이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41절)

---

**2-2 < 적용과 나눔**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나са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요 20:31).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 2 내가 겪는 어려움과 기도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1월 11일 본문, P180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여세요.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11:36-44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 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 나이다	36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7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38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41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36 So the Jews said, “See how he loved him!” 37 But some of them said,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man also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38 Then Jesus, deeply moved again, came to the tomb. It was a cave, and a stone lay against it. 39 Jesus said, “Take away the stone.” Martha, the sister of the dead man, said to him, “Lord, by this time there will be an odor, for he has been dead four days.” 40 Jesus said to her,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41 So they took away the stone. And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42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I said this on account of the people standing around,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3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 죽었던 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베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43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44 The man who had died came out, his hands and feet bound with linen strips, and his face wrappe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적miracle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sign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는 ~이다'라고 언급한 표현들을 일곱 번 열거했습니다. 요한의 저작물(요한복음, 요한 일, 이, 삼서, 요한 계시록)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가지 표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일곱 번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언급된 구원자(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표적들 중 마지막 표적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극적인 표적을 살펴봅니다.

**1-1 < 관찰과 묵상 >**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에 마르다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35, 38절). 이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함이었습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는 상황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꾸민 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권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1-2 < 적용과 나눔 >**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된 일, 또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해설** 우리는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 앞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문제라도 견디고, 이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 < 관찰과 묵상 >** 사람들이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41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셨습니다.

**해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실행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응답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요 20:31).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 2 내가 겪는 어려움과 기도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였던 나사로를 잃고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셨음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언급된 울음과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단순히 고통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심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포함한 울음입니다.

“Accordingly, I would maintain that Jesus’ weeping here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ilure of his followers to recognize his mission as the agent of God. God’s Son was in their midst. They really missed the point. That fact becomes more evident in the next two segments of the story.” \_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307.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1세기 당시의 무덤은 주거지로부터 약간 떨어져 형성된 자연 동굴 또는 인공 동굴 등이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동굴이 무덤으로 사용된 예를 고고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입구는 두껍지 않은 큰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의 형태는 나중에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무덤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This type of tomb apparently served not only the body of Lazarus but also that of Jesus (cf. 19:41-20:1-12). 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308.

**39절**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집트인들과 같이 죽은 자에게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더운 기후 가운데 시체의 부패가 급속히 진행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Bodies began decomposing rather quickly in Palestine because they were not preserved by embalming processes in the manner of Egyptian funerary procedures. Spices were used primarily to hide the smell of decay.” \_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308;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15.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일곱 번째 표적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표적들의 흐름 가운데 절정에 위치합니다. 이 표적은 사망 위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또는 미리보기)를 보여줍니다.

“Lazarus’s death is viewed by Jesus as an occasion for the glory of God to be revealed. This seventh, climactic sign demonstrates Jesus’ power over death, thus foreshadowing his own resurrection.” \_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16.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실행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응답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지셨습니다.

“Of course, “Jesus is in constant communion with his Father, who always ‘hears’ even the unspoken thoughts of his heart, and therefore has already ‘heard’ his petition for Lazarus” (Barrett 1978: 402).” \_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16.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부

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적을 배열했을 것입니다. “In this case the mission statement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11:42) is very close to the purpose statement of the Gospel (20:31).” \_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308.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신약성경 안에서 죽은 사람이 수족을 베로 동였다는 기록은 더이상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죽었던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수로라도 죽지 않았던 나사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확실히 죽어서 뱀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In any case, one ought not suppose that Lazarus’s graveclothes restricted his movement to the extent that his coming out of the tomb necessitated a “miracle within a miracle.” ... “In fact, The resurrection of Lazarus, occurring before that of Jesus, could only be a pale anticipation of what was yet to come(Carson 1991: 419).” \_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17.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2월 17일 본문, P168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다른 사람이 나의 발을 씻어주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13:12-20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요 13:1-20). 그 이후에는 고별설교를 통해 유일한 구원의 길, 보혜사 성령님, 포도나무의 비유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살펴봅니다. 당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5절)

**1-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2-1 < 관찰과 묵상**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18절)

---

**2-2 < 적용과 나눔**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그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에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생이며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경험케 함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품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섬김을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하소서.
- 2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다른 사람이 나의 발을 씻어주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13:12-20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겹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2 When he had washed their feet and put on his outer garments and resumed his place, he said to them,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to you?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13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so I am.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4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4 If I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15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just as I have done to you.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16 Truly, tru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17 If you know these things, blessed are you if you do them.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8 I am not speaking of all of you; I know whom I have chosen. But the Scripture will be fulfilled, ‘He who ate my bread has lifted his heel against me.’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19 I am telling you this now, before it takes place, that when it does take place you may believe that I am he.

20 Truly, truly, I say to you, whoever receives the one I send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the one who sent me.”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요 13:1-20). 그 이후에는 고별설교를 통해 유일한 구원의 길, 보혜사 성령님, 포도나무의 비유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살펴봅니다. 당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1 < 관찰과 묵상 >**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같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해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생'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선생과 제자의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주'라는 표현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가르칠 내용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 언어에서 '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범', '선한 것', '나쁜 것',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용기나 용맹함이 모범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 앞에 겸손과 섬김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나를 섬기신 예수님 처럼, 나도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2-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시 41:9)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해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믿었던 상대가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 대한 반역을 꾀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우월한 자의 식탁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충성의 서약을 의미했습니다(삼하 9:7-13; 왕상 18:19; 왕하 25:29). 함께 빵을 먹은 자를 배신했다는 것은 충성을 약속했지만, 배신함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2-2< 적용과 나눔**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그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합니다. 내가 비록 예상하지 못한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도 대화해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에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생이며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경험케 함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품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섬김을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하소서.
- ②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시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the present section, Jesus, upon returning to his seat, drives home the lesson that he intended to teach his disciples by washing their fee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external act itself, Jesus points to the "principle that underlay that action" (Morris 1995: 550)." \_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0.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생’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선생과 제자의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주’라는 표현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John’s Gospel regularly portrays Jesus being addressed in those terms by his disciples or others (Köstenberger 1998a: 97–128).<sup>40</sup> The designation “rabbī” was in keeping with Jewish teacher-disciple relationships; “Lord,” on the other hand, was an expression commonly applied to God in the LXX. Jesus acknowledges being both.”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0.

**15절**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 언어에서 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범’, ‘선한 것’, ‘나쁜 것’,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용기나 용맹함이 모범이 가르침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 앞에 겸손과 섬김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Greco-Roman writers likewise use the term to denote examples of various virtues.” ... “whereas Greeks and Romans prized virtues such as courage or military prowess, Jesus exemplified humility, self-sacrifice, and love.”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1.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순종 또는 실천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성경에서도 언급되었으며 강조되었습니다. “... a blessing is pronounced on those who put Jesus’ words into practice (cf. 7:17; 12:26; see Ridderbos 1997: 464; Morris 1995: 552). The importance of acting on one’s knowledge is stressed repeatedly in the NT (e.g., Matt. 7:24–27 par.; James 1:22–25). Similar statements are attested in Greco-Roman sources.”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1.

**18절**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믿었던 상대가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우월한 자의 식탁에서 빵을 나누다는 것은 충성의 서약을 의미했습니다(삼하 9:7-13; 왕상 18:19; 왕하 25:29). 함께 빵을 먹은 자를 배신했다는 것은 충성을 약속했지만, 배신함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abbinic interpretation took Ps. 41:9 to refer to Ahithophel’s conspiracy with Absalom against David.<sup>3</sup> In ancient Semitic cultures, eating bread at the table of a superior amounted to a pledge of loyalty (2 Sam. 9:7-13; 1 Kings 18:19; 2 Kings 25:29), and “to betray one with whom bread had been eaten . . . was a gross breach of the traditions of hospitality” (Bernard 1928: 2.467).”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2.

**1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타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묘사했습니다. “But at the transition to the rejection of Jesus in the Centerpiece of the Gospel, this expression i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12:38), and it is employed thereafter an additional five times in the Farewell Cycle and Death Story in reference to the fulfillment of an Old Testament text (13:18; 15:25; 17:12; 19:24, 36) and twice in reference to the fulfillment of Jesus’ words (18:9, 32). John wanted his readers to understand that the death of Jesus was no accident and that the sacrifice of the Lamb of God was God’s means for dealing with the sin of the world (1:29).” \_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67;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3.

**19절**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기를 원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의도를 기록했습니다. “Moreover, John 13:19 clearly indicates that the fulfillment of Jesus’ prediction was to be understood by his disciples as a confirmation of his identity and mission.” \_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67.

**2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을 보낼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접을 받거나 또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선생인 자신이 가롯 유다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거부를 당할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친밀함 가운데 제자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This teaching (which mirrors Jewish teaching on representation [see commentary at 5:23]) is also found in the Synoptics (Matt. 10:40; Mark 9:37; Luke 10:16; cf. Matt. 25:40). In context, this statement, which is rather surprising at this juncture, may serve the dual purpose of alluding to Judas’s betrayal and of anticipating the disciples’ future commission, which will entail identification with Jesus, their sender (20:21), and lead them to experience similar rejection as did their master (Carson 1991: 471–72). Perhaps in order to encourage his followers not to waver in the face of Judas’s imminent defection, Jesus reminds them of their close association with him in their mission (Ridderbos 1997: 467).”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in BECNT, 253; Gerald L. Borchert, John 1-11 in NAC, 67.

## • 2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 주요 사역 일정

-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작정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함으로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형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중보기도 작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더 넓게,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전도폭발훈련 36기(2/10-4/28)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훈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 Mission On Plus 30일을 준비하는 사역자팀과 캠페인 팀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 순들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 다음 세대 일정

- Sonlight의 학생들과 모든 봉사자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2월 15-17일에 있는 수련회 주강사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 NEXT 학생들이 2월 15-17일에 Warm Beach Camp에서 진행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강사로 섬기시는 이종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비성경적인 가치들과 도전들,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 공동체 30일 준비모임이 3월 16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3, 4월에는 프리뷰 교재가 제공되지 않고, 3월 16일에 공동체 30일 교재가 제공됩니다.

#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2. 2.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역은이 | 권 준

퍼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mailto: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 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